

# 프랑스의 이국, 코르시카

아름다운 해안으로 유명한 프랑스형 섬. 롱디나라 해변을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세 곳이 이 섬에 있다. 1000킬로미터 이상 이어지는 해안선은 7~8월을 제외하면 한적한 편이다.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 남동부 해상에 자리하지만 프랑스와는 다른 이국적 정취가 농밀한 곳이다. 시칠리아, 사르데냐, 키프로스에 이어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코르시카의 풍광을 화보에 담았다.

글 트리스탄 러더퍼드 사진 마크 도지어

## THE BLUE LAGOON

The French island of Corsica is all about the coast. It boasts not one, not two, but three of the best beaches in Europe, including Rondinara Beach, a perfect curve of sand that encircles a turquoise lagoon. Best of all, Corsica's coastline of more than 1,000km is empty outside the months of July and August. The Mediterranean's fourth-largest island (after Sicily, Sardinia and Cyprus) is a land of wildflowers and mountains.

By Tristan Rutherford Photographs by Marc Dozier



## 이탈리아에 더 가까운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보다 이탈리아에 더 가깝다.

고대 에트루리아, 그리스, 로마, 고트 족의 영향을  
받았으며, 리구리아 해를 건너온 토스카나인을  
비롯한 이탈리아인들은 보니파시오 항구에 성벽을  
쌓고 1768년까지 프랑스 해군에 저항하였다.

코르시카 섬 사람들의 말은 이탈리아 피사  
지방에서 사용하는 토스카나어와 매우 유사하다.

코르시카와 사르데냐 섬은 무척 가까워서  
땅거미가 질 무렵 출발하면 일몰과 함께  
하얀 절벽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절경을 볼 수 있고,  
라베치 섬 인근에서는 돌고래 떼를 만날 수 있다.

## NEARER PISA THAN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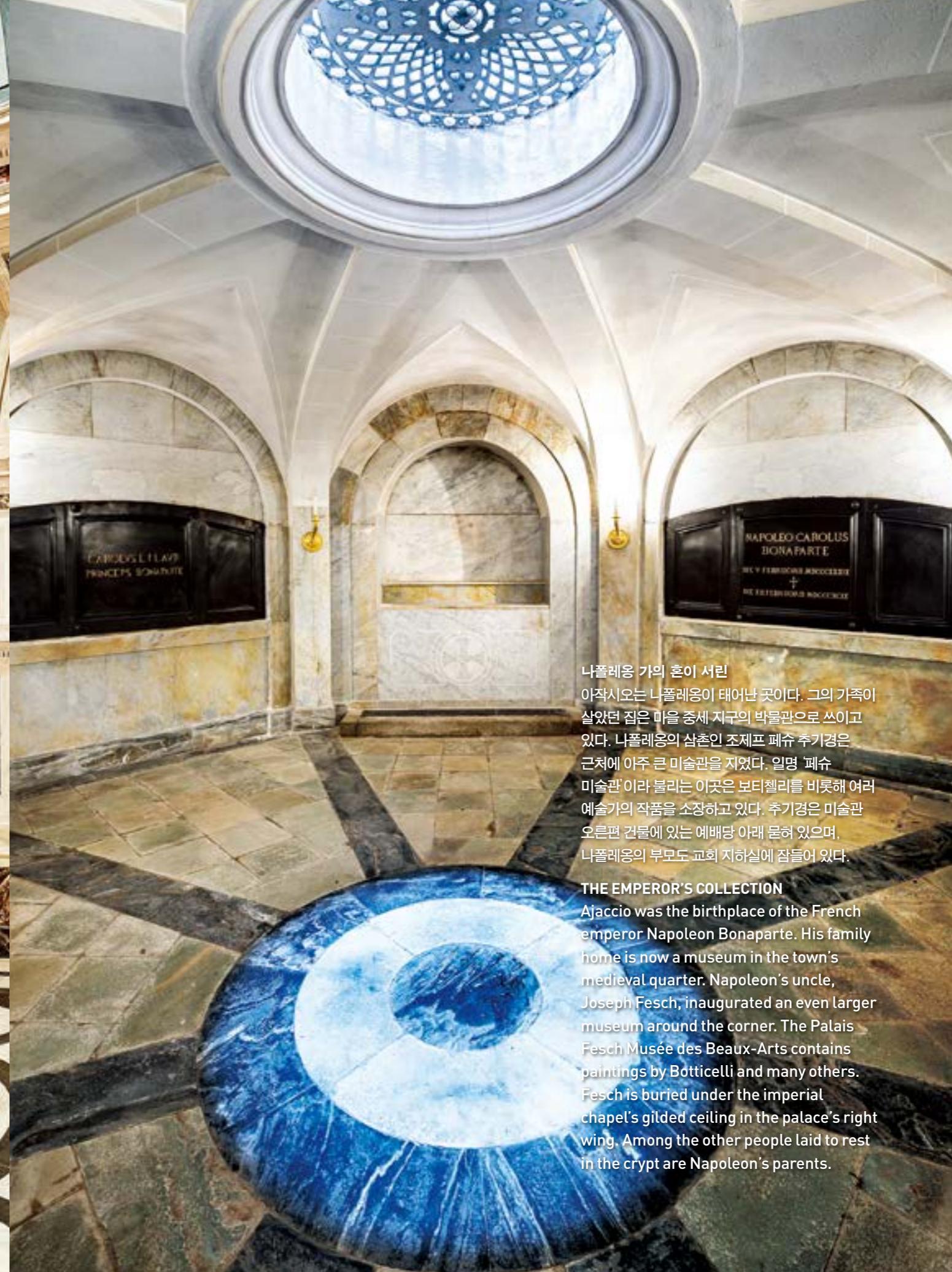
Corsica is closer to Italy than to France.

Early invaders from the continent included  
Etruscans, Greeks, Romans and Goths.  
The Tuscans built towering ramparts at  
Bonifacio Harbor that kept the French navy  
at bay until 1768. Corsica's mother tongue  
is still Corsu, a close relative of Tuscan,  
the dialect spoken in Pisa, a few hours'  
sail northeast. If you plan on continuing  
from here to Sardinia, time your departure  
for dusk, when Bonifacio's white cliffs  
glow pink in the setting sun. Dolphins  
will accompany your boat to the Lavezzi  
Islands, midway across the strait.



물고기와 여행을  
섬 서부 해안에는 수산 양식장이 있다.  
코르시카 섬 중심 도시인 아작시오의 주요 산업은  
양식업과 관광업이다. 고래 관광 여행을 통해  
줄무늬돌고래와 긴수염고래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고, 부둣가의 식당에서 황새치와 오징어 요리를  
즐길 수도 있다. 주민들은 해산물을 얇게 썰어  
날로 먹는 카르파초를 즐겨 먹는다. 저녁에  
베르멘티노 백포도주나 바르바로사 적포도주를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다. 이 두 포도주는 마을  
인근에 있는 포도밭에서 난 포도로 만든다.

**FISH AND TRIPS**  
A fish farm floats off Corsica's western coast. Aquaculture and tourism are two key industries in the regional capital of Ajaccio. Visitors may take cetacean-spotting trips from the quayside to see striped dolphins and fin whales or dine on swordfish and squid in the Italian restaurants that ring the port. Locals prefer their seafood thinly sliced and raw, in the form of carpaccio. Pair dinner with a smooth vermentino white or fiery barbarossa red wine. Both come from the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Ajaccio vineyards, next to the town.



#### 나폴레옹 가의 혼이 서린

아작시오는 나폴레옹이 태어난 곳이다. 그의 가족이 살았던 집은 마을 중세 지구의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나폴레옹의 삼촌인 조제프 페슈 추기경은 근처에 아주 큰 미술관을 지었다. 일명 페슈 미술관'이라 불리는 이곳은 보티첼리를 비롯해 여러 예술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추기경은 미술관 오른편 건물에 있는 예배당 아래 묻혀 있으며, 나폴레옹의 부모도 교회 지하실에 잠들어 있다.

#### THE EMPEROR'S COLLECTION

Ajaccio was the birthplace of the French emperor Napoleon Bonaparte. His family home is now a museum in the town's medieval quarter. Napoleon's uncle, Joseph Fesch, inaugurated an even larger museum around the corner. The Palais Fesch Musée des Beaux-Arts contains paintings by Botticelli and many others. Fesch is buried under the imperial chapel's gilded ceiling in the palace's right wing. Among the other people laid to rest in the crypt are Napoleon's parents.

### 해변의 성이 바라보이는

맑은 날이면 약 17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프랑스 본토에서 칼비의 요새가 보인다고 한다.  
이탈리아인들이 세운 이 요새 꼭대기에서 보이는  
풍광은 가히 절경이다. 해변이 코르시카 섬의  
북쪽 해안선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뻗어 있다.  
이 풍경 덕분에 여행 전문지 <트래블+레저>는  
코르시카 섬을 '꿈의 여행지'로 명명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올해 가볼 만한 여행지'로 선정했다.

### CASTLES IN THE SAND

On a clear day, Calvi's citadel can be seen  
from mainland France, some 175km away.  
The view from atop the castle walls is  
immense. Beaches line Corsica's northern  
coast for as far as the eye can see. Such  
scenes earned Corsica a spot on *Travel +*  
*Leisure's* list of 50 dream trips for readers  
in 2014. *National Geographic* named the  
island as a go-now destination this year.



**찾아가는 길**

코르시카 섬의 북부와 남부 행정 중심지, 바스티아와 아작시오는 파리와 로마에서 비행기로 갈 수 있다. 서부 칼비 근방의 생트카트린과 남부 보니파시오 가까이에 있는 피가리 쉬드 코르스 공항은 마르세유와 니스를 포함해 프랑스 남부 지방과 직항으로 연결돼 있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코르시카 페리([www.corsica-ferries.co.uk](http://www.corsica-ferries.co.uk))는 리구리아 해 건너 프랑스 남동부 툴롱과 니스에서 출발하는 배편과 제노바 만 건너 이탈리아 북서부 사보나에서 출발하는 배편이 있다. 섬 내륙의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철도([www.train-corse.com](http://www.train-corse.com))는

1888년에 운행을 개시했는데, 북동부 바스티아를 출발해 중부 코르트를 거쳐 서부 아작시오까지 하루 네 편 운행한다. 코르트에서 아작시오로 가는 구간은 아주 험한 편이다. 바스티아에서 칼비까지 해변을 따라 달리는 기차도 있다.

**북부 코르시카**

코르시카 북부 지방의 자치 정부는 바스티아에 있다. 이 항구 도시에는 50개 정도의 해산물 전문 식당이 있는데, 이들은 부두를 따라 떠 있는 어선에서 그루퍼와 오징어를 사들여 멋진 요리로 만든다. 바스티아에서 남쪽으로 약 150킬로미터 떨어진 팔롬바지아

해변까지 아름다운 해안선이 이어진다. 서쪽으로 가면 빼어난 절경이 무수히 펼쳐지는데, 생플로랑 리조트에서 코르시카의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세 곳 중 하나인 살레치아 해변까지 보트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중세 양식의 칼비 요새는 생플로랑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으며, 해안을 따라 도보로 여행하려면 며칠 잡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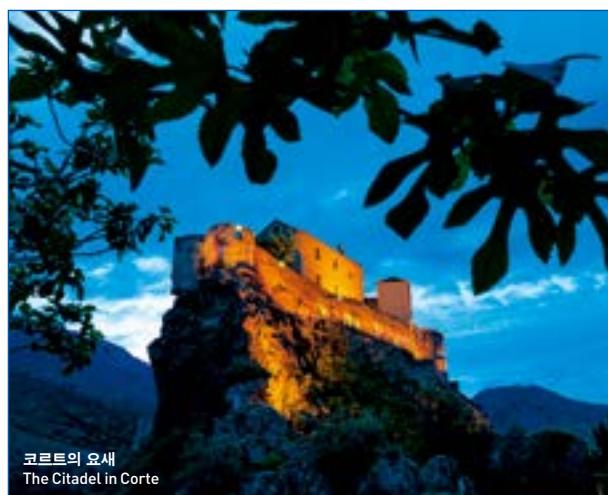
**남부 코르시카**

남부는 아작시오, 보니파시오 그리고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품고 있다. 배나 보트를 타고 라베치 군도 해상 공원, 유서 깊은 포르토베키오 항구, 이탈리아령인

사르데냐 섬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라면 아름다운 만(灣)에 둘러싸인 쿠파비아 해변으로 가면 되고, 역사 유적이나 그 흔적을 엿보고 싶다면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해 내륙으로 가자. 디즈니 만화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산 정상에 위치한 고지 마을 사르텐은 코르시카 섬의 내륙 야생 지대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카우리아의 선사시대 선돌이 사르텐의 남쪽에 있으며, 근처의 레나주와 스타트라리 거석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왔다. 코르시카 문화 탐험의 정수를 맛보고 싶다면 섬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들을 통과하는 '마르 아 마르' 오솔길을 따라 걷는 코스를 추천한다.



대한항공은 파리로 매일, 로마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Paris daily and Rome three times a week.

**GETTING THERE**

The northern and southern capitals of Corsica, Bastia and Ajaccio, welcome flights from Paris and Rome. Two smaller airports, Sainte-Catherine near Calvi and Figari Sud Corse near Bonifacio, are served by southern French airports including those at Marseille and Nice. The Italian-run vessels of Corsica Ferries ([www.corsica-ferries.co.uk](http://www.corsica-ferries.co.uk)) zip across the Ligurian Sea from Toulon and Nice and across the Gulf of Genoa from Savona, southwest of Milan. Most have cabins, plunge pools and a selection of cracking Italian restaurants. Corsica's mountain-

crossing train line ([www.train-corse.com](http://www.train-corse.com)) opened in 1888. This train chugs out of Bastia four times daily on its precipitous route to Ajaccio via Corte. An additional line runs past endless beaches from Bastia to Calvi.

**UPPER CORSICA**

The French *département* of Haute-Corse (or Upper Corsica) is anchored in Bastia. This seafaring city is based around the Portu Vechju, or Old Port. Here about 50 seafood restaurants glean their catch of grouper and squid from the multicolored fishing boats bobbing along the quay. From Bastia, beaches

run south for about 150km to Palombaggia Beach. To the west, there is plenty more stunning coastline. From the resort of Saint-Florent, visitors may take a boat to Saleccia Beach, regarded as one of Corsica's three best beaches. The medieval Citadel of Calvi is one and a half hours by car (or a multiday trek along the coast) from Saint-Florent.

**SOUTHERN CORSICA**

Corse-du-Sud, or Southern Corsica, is comprised of Ajaccio, Bonifacio and one of the finest coastlines in the Mediterranean. Take a boat trip to the Lavezzi Islands Marine Preserve, the

ancient harbor of Porto-Vecchio or the Italian island of Sardinia. Beach lovers will delight in Cupabia Beach, sheltered in one of Corsica's many stunning coves. For history, head inland by car or bike. The towering mountaintop village of Sartène is the gateway to the island's wild interior. Cauria's prehistoric standing stones are south of Sartène, and the nearby Rinaghju and Stantari megaliths may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For the ultimate cross section of Corsican culture, hike the southern Mare a Mare trail, which passes many of the island's most ancient sights.